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지금 신의 보물들로 부양되고 있다. 너희들의 의무는 지식의 보물을 나눠줘서 모든 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 질문:** 마야의 징조가 있을 때 너희 자녀들이 하는 놀라운 게임은 무엇이나?
- 대답:** 나쁜 징조가 있을 때 너희는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아버지, 스승, 구루 세 분을 다 잊는다. 놀라운 것은 지각에 믿음을 지녔던 아주 훌륭한 자녀들조차 “나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지식에 경탄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들려준 다음 도망친다! 오늘 그들은 “마마, 바바”라 하다가 내일이면 사라진다. 심지어 알려고 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바바는 그들 모두 바바에게서 은신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올 것이라고 얘기한다.
- 노래:** 쉬바에게 경배를!

옴 산티. 너희 자녀들은 시시때때로 이 노래를 듣고, 또 이 세계 너머에서 온 너희들의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을 기억한다. 너희는 이런저런 유형의 행복을 주는 누군가를 항상 기억한다. 베나레스에는 쉬바의 사원이 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무체인 아버지를 기억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가 락쉬미와 나라얀을 기억하는데, 그들의 왕국에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왕과 왕비에 대한 칭송이 있다. 온 세상 전체가 “오 신, 아버지”라며 기억한다. 그분만이 세계의 아버지다. 다른 누구도 세계의 아버지가 아니다. 무체인 신이 세계의 아버지다. 그 한 분만 아바타, 즉 다시 몸에 들어와 강림한다고 불린다. 그는 미묘한 몸이든 육신이든, 몸을 갖지 않는 유일한 아버지다. 심지어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에게도 각자의 미묘한 몸이 있다. 그들은 강림한다고 불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림체’라는 말은 아주 고귀하다. 그는 모든 이의 아버지,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정화자다. 인간 영혼들은 모두 처음에 올 때는 사토프라단하고, 그 다음 사토, 라조, 타모의 단계를 거친다. 영혼들은 불순하고 불행해져야 한다. 모든 이가 환생한다. 심지어 브라마도 인간이라고 불린다. 비슈누의 이중의 형태, 즉 락쉬미와 나라얀도 인간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그들을 강림체라고 부를 수 없다. 오직 그 분만 강림한다.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온다. 그는 온 세계 전체가 불순해진 다음에 온다. 모든 인간은 신, 아버지의 피조물이다. 모든 이는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로 신, 아버지에게 대해 얘기한다. 모든 영혼은 지각으로 그 아버지를 기억한다. 그들이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브라마나 비슈누, 샹카르 중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창조주 단 한 분만 아버지라고 불린다. 사이클의 합류시대에 모든 인간이 불순해지고 나면 철시대를 황금시대로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강림한다. 그는 창조자다. 브라마를 통해서 그는 수립을, 샹카르를 통해서는 멸망을, 비슈누를 통해서는 부양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는 바라트에 온다. 쉬브 라트리로 역시 오직 바라트에서만 경축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쉬바의 이름, 형태, 나라, 때를 모른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를 모르는 탓에 그들은 내가 편재한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나를 매우 모욕했고, 그래서 바라트의 사람들은 완전히 불순해졌다. 바라트에 있는 모든 이가 불순한 영혼이 되었을 때 내가 온다. 철시대에는 순수한 영혼도, 자비로운 영혼도 있을 수 없다. 순수한 영혼들은 순수한 세계에 거주한다. 그것은 완전히 악덕 없는 세계라고 불린다. 비교해볼 때 철시대는 사악한 세상이다. 철시대의 끝과 황금시대 시작의 합류는 합류시대라고 불린다. 은시대와 동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비교되지 않는다. 끝이란 낡은 세계 전체의 끝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황금시대는 순수한 세계이고, 그 다음에 도수가 계속 줄어든다. 황금시대와 은시대조차 똑같다고 불리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 자녀들은 등수대로 나를 알아본다. 마야가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이때에 있다. 마야는 너희가 거둬 잊게 만든다. 너희들은 너희가 브라마의 자녀들이고 쉬바의 손주라고 한다. 이 말을 하고도 너희는 잊는다. 무지의 길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그의 앞에 앉아있으면서도 브라마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한다. 너희는 완전히 잊는다. 너희는 그를 결코 다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잊는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너희 바라트의 사람들은 천국을 창조하는 이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는 것과, 지옥을 만드는 것이 마야, 라반이라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두 가지를 다 잊는다. 너희는 아버지도, 라반도 모른다. 사람들은 쉬바를 숭배하고 라반의 형상을 불태우지만,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분의 직업도 전기도 모른다는 점이다. 자기들이 불태우는 라반이 누구인지도 그들은 모른다. 모든 왕, 왕비, 백성들이 “인간”에 포함된다. 모든 이가 저급한 지각을 가졌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종교를 세우려고 오는 다른 이들 중에 다시 몸에 들어와 강림한다고 불리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한 분 뿐인 아버지만이 바라트에 강림하지만, 바라트의 사람들은 이를 잊는다. 비록 그들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을 숭배하지만 그가 언제 왔는지, 그가 왔을 때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들은 아버지와 피조물의 처음, 중간, 끝도 모르고 신인들의 전기도 모르며,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다. 바라트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으로 행복했다. 그들은 세계의 완전한 주인들이었다. 지금 바라트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순수하고 고귀했었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참으로 명확하게 설명한다! 그가 누구에게 설명하겠느냐? 나는 내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나는 내 자녀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자녀들도 역시 드러나야 한다. 그들은 “마마, 바바”라고 말한 다음에 잇는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무지의 길에서 사람은 결코 아버지, 선생, 구루를 잊을 수 없다. 여기서 너희는 슬픔을 모두 제거해주는, 참으로 위대한 팔로킧한 아버지를 잇는다. 이런 이유로 “지식을 들었을 때 경탄했고, 그것을 남들에게 들려줬던 자들이, 그 다음에는, 오 마야! 너는 참으로 강력하구나! 너희들은 무한한 아버지에게 속했고, 그를 스승이라 여기며 그에게서 공부했고, 그를 너희의 참된 사트구루라고 여겼지만, 그 다음에 세 분을 다 잇은 자들이다!”라고 일컬어진다. 한 분을 잇으면 너희는 세 분을 다 잇는다. 한 분을 기억하면 너희는 세 분 모두를 기억하는데 세 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분 자신이 아버지, 스승, 사트구루이며, 그는 정확하다. 그가 이르는데, 나는 아버지이며 틀림없이 너희를 지고의 거주지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너희의 스승이니 틀림없이 너희를 가르쳐서 왕들 중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사트구루이며 너희가 하는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반드시 너희 자녀들 모두를 데리고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것을 보장한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희는 그런 아버지를 잇는다. 마야의 나쁜 징조들은 너희가 오늘 “바바”라고 하고, 내일은 의심이 든다고 얘기할 정도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 물론, 일부 어떤 이들은 마지막에 와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징조들이 제거되면 그때 그들이 여기에 올 것이며, 그것은 드라마에 정해져 있다. 멸망은 일어나야 한다. 그때 너희는 누구에게로 피신하겠느냐?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공여자는 그 한 분뿐이다. 그는 또 모든 이를 피신시켜 준다. 모든 이가 와서 머리 숙여 절할 테지만, 그때에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그렇게 큰 군중의 무리가 여기에 올 수 없을 것이다. 만들어져 온 이 연극은 아주 경이롭다. 참으로 큰 군중의 무리가 여기에 와서 뭘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멸망이 아주 금방 너희들 앞에 올 것이다. 물론 그들은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기억해라, 이제 너희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만나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바는 비록 누군가 해외에 있어도 그의 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 생각이 그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모든 이가 다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그 많은 수의 사람이 어떻게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 아주 경이로운 드라마가 만들어져 왔다.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모든 이가 다 알 것이다. 기독교도들 모두가 다 교황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 모두가 거기에 갈 수는 없다. 여기서도 역시 아버지가 왔다는 것과 그가 모든 이를 해방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리라는 것을 모든 이가 마지막에 알 것이다. 그토록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루드라의 염주는 참으로 크다. 그것에 비해 비슈누의 염주는 참으로 작다. 사실 염주 전체가 비슈누의 염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비슈누가 있다. 인류의 고조부는 브라마다. 브라마가 그 다음에 비슈누가 된다. 비슈누의 이중의 형태는 락쉬미와 나라얀이며, 아무 차이도 없다. 이것은 아주 경이로운 것들이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되새겨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바바가 이미 너희들에게 설명했듯이 오직 그분만이 강림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몸을 갖지 않지만 다른 이들은 모두 다 각자의 몸을 갖기 때문이다. 바바는 몸을 빌려야 하지만, 나머지들은 각자의 몸을 가진다. 빌린 것은 누군가 다른 이에게 속한다. 몸을 빌렸다고 말할 영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혼은,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쉬브 바바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너희 자녀들에게 지식을 주고 요가를 가르치려고 단지 이 몸의 지원을 취할 뿐이다. 바바가 이 몸의 지원을 취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도 알지만 그런데도 너희는 거듭 이를 잇는다. 너희가 육체의식이 될 때는 그에 대한 그 존경심을 잃는다. 그렇지 않고 바바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그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들은 매 발걸음마다 슈리마트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마야는 너희를 잊게 만든다. 그러면 너희는 때로 슈리마트를 따르고 때로는 사악한 지시를 따른다. 때로는 저 쪽이 무겁고 다른 쪽은 가볍다. 너희는 때로 그의 지시를 따르고 다른 때는 마야의 지시를 따른다. 너희가 계속해서 쉬브 바바의 슈리마트만 따른다면 그것은 좋다. 그러면 너희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제 자신의 지시를 따른다.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가 내리는 지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드라마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일컬어진다. 왕국이 세워져야 한다. 그것에는 차이가 조금도 있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바바를 만나려고 오지만,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들은 완전한 믿음을 갖고 오지 않는다. 일부는 5%의 믿음을, 일부는 15%의 믿음을 가진다. 무지의 길에서는 어떤 이가 너희의 삼촌이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는다. 마야는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너희를 쓰러뜨리는데 그것은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믿음을 키우는 동안에도 그들은 사라진다. 놀라운 일이다! 저 분은 아버지, 스승, 사트구루다. 각자는 지난 사이클에 했던 것처럼 노력하는데 따라 등수대로 지식을 취한다. 지난 사이클에 각자가 유산을 얼마나 받았든 각자의 행동은 그에 따른다. 지금 이때에는 브라민들의 염주가 만들어질 수 없는데, 나쁜 징조가 계속되어서 그들이 끊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백성들의 염주에 들어간다. 백성들 중에서도 때로는 뭔가 한 가지가 되고 때로는 다른 뭔가가 된다. 염주는 틀림없이 있다. 루드라의 염주와 비슈누의 염주가 있다. 하나는 영적인 염주,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염주다. 이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고 무한하며 깨끗한 지각이 필요하다. 계속 슈리마트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너희는 충실하고 순종적이 되어야 한다. 쉬브 바바의 봉사는 참으로 위대하다. 사람들은 “오

정화자여, 오소서!“라고 한다. 바바는 순수한 세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순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정화시키려고 아버지가 와야 한다. 그렇게 놀라운 배역이 지금 이때에 연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연기하는 그의 역할은 위대하다. 1등의 기념물은 그분의 기념물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분의 탄신일을 경축한다. 그가 그렇게 만드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칭송이 아주 많다. 지금 이때 모든 인간은 불순하고 타락했다. 황금시대에 그들은 고귀했고 천사들의 나라 (파리스탄)의 주민들이었다. 낮과 밤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제 쉬브 바바에게서 우리의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때 우리는 뭘 축하해야 하느냐? 축하하는 신봉의 길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이때에 너희는 슈리마트를 따르고 봉사하는 데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전시회에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창안되었다. 너희 자녀들은 신을 위한 봉사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의 보물들로 부양 받고 있는 자들은 인간들이 빨리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상승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 발자국마다 슈리마트를 따라라. 정확하게 아버지를 인식하고 영혼의식이 되어서 그에게 완전한 존경심을 가져라.
2. 2. 신을 위한 봉사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라. 기억으로 너희의 지각을 깨끗하고 무한하게 만들어라.

축복: 아버지와 의 동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쉬운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아버지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의 힘 하나의 지원으로 모든 과제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성공의 화신이 되는 쉬운 길이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는 과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조차, 가능하게 여겨진다. 브라민 생에서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신체적 노력이거나 영적 노력이든, 전능한 권위자가 너희와 함께일 때 그것은 불가능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산도 겨자씨가 된다. 너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조차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슬로건: 때의 중요성을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성취의 보물들로 가득해질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